

빛고를 독서마라톤대회 하프코스 1위 대광여고 '명품' 팀

“책과 씨름 3개월...독서는 일상이 되었죠”

“명품처럼, 독서를 통해 가치있는 사람이 되자는 뜻이죠.”

제2회 빛고를 독서마라톤대회에서 하프(2만1천97쪽)코스 단체 부문 1위를 차지한 '명품'팀의 작명 동기다. '명품'은 대광여고 1학년 4반 학생 5명으로 이뤄진 팀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 대회에서 2만3천여쪽을 읽어 하프코스를 완주했고, 같은 종목에서 완주한 311개 팀 중 최우수 팀의 영예를 안았다.

1학년생 5명...311개팀중 우수

지난 26일 대광여고 도서관에서 만난 '명품' 팀원들은 지난 3개월동안 '독서의 묘미'에 흠뻑 빠져서인지 한결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이들에게 책은 언제나 곁에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였고, 독서는 밥 먹듯 계속되는 일상이었다. 독서마라톤은 학생들의 생활을 바꿨다. 마라톤이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었다고 등하고 시간, 점심 후 쉬

는 시간, 잠들기 전 등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3개월내 책과의 씨름을 해왔다.

이슬 양은 “청소년기에 많은 독서를 해야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독서마라톤 출전이 큰 동기 부여를 했다”고 말했다.

대중 읽는 독서 습관 확 바뀌

최서경 양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 중 30분은 독서 시간으로 정해놓고 꼭 책을 읽었다”며 “읽은 책에 대한 감상문을 반드시 써내야 하기 때문에 대중 읽는 독서 습관도 자연스럽게 고쳐졌다”고 말했다.

독서마라톤을 시작하면서 전보다 책을 더 진지하고, 진득하게 읽었다. 대회 방식에 따르면 자신이 선택한 코스를 완주하되 얼마나 성실하게 읽었는지, 얼마나 깊이 독서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등도 중요한 채점 포인트다. 읽은 책의 다양성도 심사항목 중 하나다. 무조건 많이 읽는다해서

1위에 오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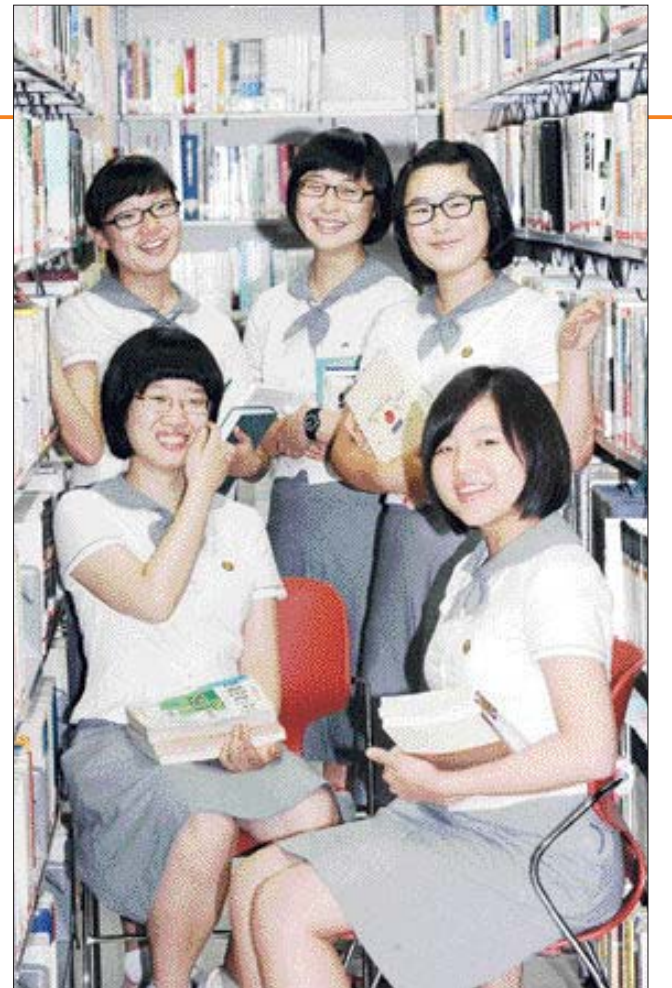
주혜령 양은 “역사나 전쟁 관련 책은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권유로 '세계사 편력'을 읽기 시작해 너무 흥미롭게 끝까지 독파했다”며 “이런 역사나 전쟁 관련 책이 내가 좋아하는 책 목록 앞순위에 끼게됐다”고 말했다.

이들이 독서마라톤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책 읽기 분위기가 조성된 학교 환경의 덕도 크다. 대광여고는 1~2학년들에게 재량활동으로 독서 수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1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교내 도서관에는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북적인다.

학교측 환경 조성도 큰 도움

이수연 양은 “독서수업에서 좋은 책을 추천받기도 하고, 내가 읽은 좋은 책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도 한다”며 “한 번은 친구가 소개해준 책을 읽은 뒤 평평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명품'팀은 제3회 독서마라톤대회에도 같은 이름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안승이 양은 “매일 일기 쓰듯 감상문을 쓰는 일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새로 시작되는 대회에서는 평소 접하지 않았던 분야의 책에 도전해볼 생각”이라며 “독서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제2회 빛고를 독서마라톤대회 하프(2만1천97쪽)코스 단체 부문 1위를 차지한 대광여고 1학년 4반 '명품'팀 학생들이 교내 도서관에서 활짝 웃고 있다. 뒷줄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승이, 주혜령, 이수연, 이슬, 최서경 양./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업체서 비용 지원 공무원 해외 견학 뇌물 아니다”

공무원이 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업체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다녀온 선진지 견학은 뇌물이 아니라 관례가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는 29일 일자로부터 여비를 받아 해외시찰을 다녀온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황모(57)씨 등 3명에게 3명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진지 견학은 관련 용역기간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 이뤄져 견학의 성과가 용역에 반영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만을 목적으로 한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수주한 2개 업체 관계자와 함께 2007년 4월 25일부터 11일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을 견학하면서 1인당 700여만원, 총 2천100여만원을 이들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



무등산 수박 축제 광주의 명물 무등산 수박 출하를 축하하는 '제1회 무등산 수박 축제'가 29일 무등산 수박 생산지인 광주시 북구 금곡마을에서 열렸다. 가격은 15kg까지는 2~9만원, 15kg 이상은 kg당 2만원씩 추가된다. /위정량기자 jwi@kwangju.co.kr

광양항 160억대 밀수조직 적발

개항 이후 최대 규모...3명 구속 1명 수배

광양항 개항 이후 최대 규모의 중국산 물품을 밀반입한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광양세관은 28일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명품시계 등 시가 160억원 상당의 중국산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한 김모(33)씨 등 3명을 밀수 혐의로 구속했으며 중국에 있는 밀수 총책 정

모(42)씨를 지명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4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42만여정, 중국산 홍삼 12t, 가짜 명품시계 1천195점 등 160억원 상당의 중국산 물품을 밀수한 혐의다. 이 같은 밀수 규모는 지난 1998년 광양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이들은 광양항에 입항한 두바이 선적의 컨테이너에 밀수품을 은닉해 두고, 세관 신고시에는 종이 박스로 위장하는 ‘택배밀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밀수 총책이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운반책, 국내 통관책 등으로 점조직화 된 밀수조직을 원격조종했으며, 각 점조직들끼리는 전혀 모르도록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불교계 “2만명 승려대회 열 것”

“정부 대책 지켜본 후 다양한 대응 방안 모색”

불교계가 정부의 종교 편향에 항의해 연 번 불교도 대회를 “성공적이었”고 자랑하는 가운데 정부가 계속 묵묵부답일 경우 한 단계 강도를 높여 승려대회를 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승려대회는 말 그대로 전국의 승려가 모이는 것이다. 만약 열린다면 불교 조계종 소속 스님 1만 3천여 명을 비롯해 태고종 6천여 명, 천태종 500여 명 등 모두 2만 명 가량이 집결하게 된다.

이해 도시의 포교원이나 불교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사관승(事判僧)’ 뿐만 아니라 깊은 산속의 절이나 암자에서 수도하며 참선하는 ‘이관승(理判僧)’에 이르기까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만큼 신도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이 불교계의 주장이다.

승려대회는 1986년 해인사에서 당

시 군부세력에 항의해 ‘반독재 민주화’라는 가치 아래 열렸던 적이 있다. 당시 한 스님은 대중 앞에서 손가락을 네 개 찌르는 ‘단지(斷指) 공양(부처님에게 바침)’을 해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불교도 대회를 앞두고 일부 선승(禪僧) 사이에서 ‘소지(燒指)’ 또는 ‘소신(燒身) 공양’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점을 감안할 때 승려대회가 치러질 경우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조계종 측은 우려하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불교가 배척받던 세상에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극단적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선방(禪房)의 정서를 전달하면서 “절로 통하는 문을 열어 잠그는 ‘산문폐쇄’의 경우 행동을 함께 해야 하는 대중과 소통을 끊는다는 단점 탓에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도 대회 사무처장인 헤일 스님은 “불교도 대회에 나온 열기와

의지를 정부가 헤아려줬다면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좀 지켜본 다음 추적이 지난 후 원로 종진 스님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행안부 종교 편향 방지 교육

행정안전부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준칙 종교 편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우선 각급 행정기관의 9월 직장교육과 공무원의 자제와 공무원처리 요령 등에 종교 편향 방지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종교적 중립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를 통해 종교 편향 방지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옛 애인 집착-경찰서 자해 소동

○해어진 애인을 스토킹하는 등 괴롭히다가 애인의 부모에 의해 경찰서로 가던 20대 남성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흉기로 자해해 한바탕 소동.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10분께 옛 애인 B(20)씨의 부모와 함께 B씨를 폭행한 것 등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남부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뒤 갑자기 자신의 손목을 흉기로 자해했다는 것.

○B씨의 부모는 A씨가 2년 동안 사귀던 B씨에게 결별을 통보받은 후 만나지 않자 두 차례 때리고 새벽에 집 밖에서 소리치려는 등 괴롭히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A씨가 자해하면서도 극도로 흥분하는 등 옛 애인에 대한 집착은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쓴 웃음. /광복상기자 kps@kwangju.co.kr

‘설마’에 발등 찍힌 강도

현장에 버린 쇼핑백서 지문 나와

편의점 강도가 흥기를 날려줬던 쇼핑백을 사건 현장에 버리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에서는 29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흥기로 찌른 뒤 현금을 갈취해 도주한 혐의(특수강도)로 10대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모(17)군 등 2명은 지난 25일 새벽 5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 편의점에서 청소 중이던 아르바이트생 선모(19)군의 손가락을 찌러 자행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안에 든 현금 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새벽녘이라 인적이 드문 시간을 노린 고군 등은 현금 갈취에

성공했고 모자를 썼기 때문에 CCTV 촬영도 피하는 등 완전 범죄에 성공한 듯 했다. 하지만 범행이 성공했다는 성취감 때문인지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범행 도구를 담는데 사용한 쇼핑백을 범죄 현장 인근 500m 떨어진 지점에 버려두고 간 것.

사건 발생 후 인근을 살살이 뒤지던 경찰은 쇼핑백을 수거해 지문을 채취했고 이것이 범인들을 잡는데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찰은 지문 조회 작업을 거쳐 확인해본 결과 고군 등이 차량 절도 혐의로 담양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숨겨둔 흥기도 압수했다. /정상필기자 kps@kwangju.co.kr

광고 중단 운동 네티즌 24명 무더기 형사처벌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29일

권 국민편견인’ 개설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카페의 ‘계시관 지기’ 1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의 회원들은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는 등 카페 운영진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연합뉴스

Weather forecast for August 30th (Sun) and a table of sunrise/sunset times for various locations in Gwangju.

장흥군 일부 공무원 불·탈법 극심

뇌물·비리 2명 항소 기각, 11명 자체 징계

장흥군 공무원들의 불·탈법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는 29일 공사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군청 예산을 빼돌리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모(41), 변모(48)씨 등 장흥군 공무원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변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자신이 무죄라거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들은 문화재 안내관 설치공사를 맡기면서 광고업자에게 수백만원의 빚돈을 받고 편의를 봐주거나 설치비용을 부풀려 남은 비용을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1천400만원의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 다른 공무원 11명도

법규형을 선고 받았으며 검찰은 경미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도 자체 징계하도록 해 율령한 돈으로 회식을 즐겼던 군청 내부가 ‘축대밭’이 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또 최근 장흥군 문화관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체육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중이다.

검찰은 전남도로부터 넘겨받은 감사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을 분석해 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도 관련 서류는 심하다 싶을 만큼 미비했다”며 “애초 계획에 없던 압수수색을 한 것도 증거자료가 너무 부족해 혹시 숨긴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였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a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real estate agency.